SPOT
ISSUE

4 Dec. 2025

DAOL 다올투자증권

(Neutral)

운송

육운: 쿠팡 회원 이탈 시 물동량 시나리오

오정하

운송 I junghao@daolfn.com

●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11월 19일, 쿠팡이 개인계정 해킹 사실을 보고함. 유출 규모는 3,370만건으로 2011년 네이트 사고 이후 최대규모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조원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소비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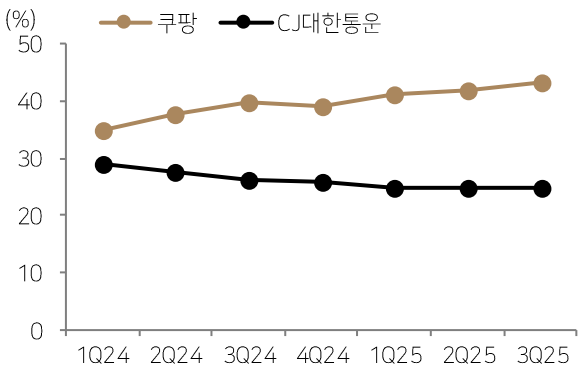
● 영업정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들은 많았음. 그러나 2011년 이후 개인정보유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업을 정지한 사례는 없고, 일정 기간 신규 영업 제재에 그침

● 반쿠팡 진영으로 회원 이탈이 일어난다면

쿠팡과 홈플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원 이탈이 발생한다면 일반 택배사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쿠팡은 여타 택배사들과 달리 단포(개별포장) 방식으로 물동량을 카운팅했기에 시장점유율의 변동 효과는 더 크다고 판단함. 3일 오전 기준 네이버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회원(약 1.5%)가 CJ대한통운 고객사로 이동한다면 CJ대한통운 입장에서 약 4% 물량 증가 효과가 기대됨

Fig. 1: 택배사별 시장점유율



Source: 다올투자증권 추정치
Note: 쿠팡은 단포 기준, CJ대한통운은 합포 기준

Fig. 2: 3개월 이내 구매 경험 있는 온라인 장보기 채널

(%)	2023년	2025년	(증감률 %p)
쿠팡	60.3	73.7	+13.4
네이버쇼핑	35.1	38.1	+3.0
컬리	31.6	27.2	-4.4
이마트몰	25.2	21.5	-3.7
G 마켓	24.8	19.2	-5.6
홈플러스몰	20.9	18.4	-2.5
SSG 닷컴	16.8	13.6	-3.2
11 번가	19.5	13.5	-6.0
카카오쇼핑	10.7	12.0	+1.3
옥션	15.8	10.0	-5.8

Source: 오픈서베이, 다올투자증권
Note: 2025년 1월 조사. 음영은 CJ대한통운 고객사

Fig. 3: 2011년 이후 주요 개인정보유출사례

일자	기업/기관	사고 규모	영업정지 기간	주요 중단 업무
2011.07	SK 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싸이월드)	약 3,500 만 건	없음	-
2011.11	넥슨	약 1,320 만 건	없음	-
2014.01	KB 국민카드·롯데 카드·NH 농협카드	약 1 억 건	3 개월	신규 카드 발급, 신규 회원 모집, 일부 대출·현금서비스 등
2014.03	KT	약 1,200 만 건	없음	-
2014.03	SKT·LG U+ 등 통신사	약 1,230 만 건	없음	-
2016.07	인터파크	약 1,030 만 건	없음	-
2017.07	유진투자선물 등 20 개 업체	약 3,300 만 건	없음	-
2025.06	SK 텔레콤	약 2,324 만 명	약 50 일	신규 가입, 번호이동·기기변경 일부 업무

Source: 언론종합, 다올투자증권

Fig. 4: 쿠팡 고객 이탈 시 물동량 증가 시나리오

(백만명)	쿠팡	대한통운	비고	
(A) 1개분기 인당 박스 개수(백만Box)	33.96	10.44	추정치	
분기당 활성화 고객	21.23	39.74	추정치, 쿠팡 3분기 활성화고객 수는 2,470만명	
(B) 쿠팡 피해자수	33.70			
(C) 쿠팡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 수	0.50			
(백만Box)	**쿠팡**	**대한통운**	**CJ대한통운의 물동량 증가율(%)**	**비고**
3분기 물동량	721.11	414.93		
1) 쿠팡 피해자 중 10% 이탈 시 물동량 이탈분	57.22			=(A)*(B)*0.1
		472.2	*13.8*	
2) 쿠팡 피해자 중 카페 가입자 이동 시	17.0			=(A)*(C)
		431.9	*4.1*	

Source: 다올투자증권 추정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8%	HOLD : 7.7%	SELL : 0.5%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